

광주시 주월동 '떡만세' 여사장 박정임씨의 성공기

10평 떡집 '뽀얀 희망'이 피어오르다

IMF가 물고온 명예퇴직에 이어 남편의 사업 실패에 따른 부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 병을 얻은 남편 때문에 깊어진 한숨. 그리고 월 매출 500만원을 올리는 떡집 사장으로 변신.

지난 28일 오후 4시께 광주시 남구 주월동의 떡집 '떡만세'(떡으로 만드는 세상). 30㎡(10여평) 가게 안에서는 뽀얀 김이 실새없이 피어올랐다. 위생복 차림에 흰색 모자를 쓴 떡집 주인 박정임(여·50)씨의 손놀림이 빨라졌다.

IMF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전락

박씨가 건넌 첫 마디는 "바쁘니까 좋아요"였다. 박씨는 이날 새벽 4시에 가게 문을 열고 유치원 등 6곳에 배달을 다녀온 뒤 주문받은 떡 케이크를 만들고 있었다. 순천에서 3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박씨는 순천여자 상업고등학교를 1회로 졸업하고 한국통신에 들어갔다. 개인사업을 하는 7살 연상의 남편을 만나 아들 하나, 딸 둘을 낳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 그러던 중 1997년 'IMF'가 닥쳤다. 2년 뒤 1억원 가량을 받고 그는 명예퇴직했다. 불행은 갑자기 닥쳐왔다. 퇴직금을 쏟아부었던 남편

의 사업은 허망하게 끝이 났다. 심장질환이 생긴 남편은 1주일 마다 병원에 다녀야 했다. 병원비, 생활비를 대느라 200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3남매를 데리고 방 2칸짜리 월세방에 살면서 컴퓨터도 배우고 요리도 배우며 발버둥치지만 재취업은 쉽지 않았다. 바깥 활동을 못하는 남편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해 남까지 내려가 배주발에서도 일했다. 식당 보조도 해왔지만 다섯 식구에겐 부족했다. 짓누르는 삶의 무게에 지쳐가던 박씨에게 새로운 희망이 찾아왔다. 지난 2007년 1월 동사무소 직원의 소개로 광주시 남구청 지역재활센터에서 비슷한 처지에 있던 7명과 함께 떡 만드는 일을 배우게 된 것이다.

재활센터서 3년간 떡 만들기 배워

쌀가루와 소금의 비율, 얼마만큼 떡을 찌야하는지 아무런 지식도 없던 박씨는 3년 동안 전문강사에게 떡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시내 유명 떡집을 돌면서 실습했다. 새벽 2~3시에 출근하고 하루 12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날의 연속이었다. 재료비를 제외하면 한 달에 겨우 30여만원을 손에 쥘 수 있었다. 박씨는 "질망에 빠질 때마다 '언젠가 나도 사장이 될

거야. 나처럼 힘든 사람에게 기술도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되뇌며 버텼다"고 했다. 고된 노동에 비해 얻어지는 게 적어서일까. 3년간의 자활프로그램이 끝나자 8명 가운데 떡집을 열려는 사람은 박씨 밖에 없었다. 지난해 1월 박씨는 시청과 구청 등의 지원을 받아 만든 7천만원으로 가게를 차렸다. 박씨는 사람들이 적어 지난 1년간 단 하루도 쉬지않고 발품을 팔아 영업했다. 남구 지역의 유치원, 동사무

월매출 500만원 떡집 사장 변신

소, 학교 등 떡을 살만한 데를 찾아가 홍보용 떡과 함께 명함을 건넸다. 남구청장의 집무실에도 찾아가 자신이 만든 떡을 권하기도 했다. 박씨의 노력에 감동한 남구는 기존에 거래했던 떡집 대신 박씨의 가게를 이용하고 있다. 발바닥이 부르르도록 된 덕분에 이제는 고정 주문처만 100곳이 넘게 됐다. 박씨는 "올 추석 전까지 목이 좋은 곳으로 가게를 옮길 생각"이라며 "유명한 떡집으로 만들어 나처럼 어두운 '터널'을 걷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떡 케이크를 만드는 박씨의 얼굴에서는 희망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최현희기자 khh@kwangju.co.kr



'떡으로 만드는 세상'(떡만세)이라는 떡집을 운영하는 박정임 사장이 28일 광주시 남구 주월동 자신의 가게에서 떡 케이크를 정반에 담아 옮기고 있다. /최현희기자 Choi@



어깨탈골 병역 기피 축구선수 5명 입건

2006년 지방선거 공천대가 수역원 건넌 전·현 전남도의원 2명 구속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조주태)은 29일 공천 대가로 수역원의 돈을 건넌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양모(65) 전남도의원과 박모(66) 전 전남도의원을 구속했다. 양 의원 등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공천(비례)을 받기 위해 당시 민주당의 모 인사에게 각각 3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의원 등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2006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민주당의 '공천 현금' 수사가 재계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006년 4월

주말·휴일 5~10mm 비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지역에 겨울비가 내린다. 광주지방기상청은 30일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남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5~10mm이다. 이번 비는 31일 새벽까지 내린 뒤 그칠 전망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33분 / 해질 17시 58분 / 달뜨기 18시 07분 / 달지기 07시 16분

겨울비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에는 맑겠고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다.

구분	기온	강수량
광주	최고/최저: -3/8℃	0.5~1.0m
목포	최고/최저: -2/8℃	0.5~1.5m
여수	최고/최저: 0/8℃	0.5~1.0m
완도	최고/최저: -1/8℃	0.5~1.0m
구례	최고/최저: -5/6℃	0.5~1.0m
애남	최고/최저: -4/9℃	0.5~1.0m
장흥	최고/최저: -4/9℃	0.5~1.0m
고흥	최고/최저: -6/8℃	0.5~1.0m
순천	최고/최저: -2/7℃	0.5~1.0m
영광	최고/최저: -4/7℃	0.5~1.0m
진도	최고/최저: -3/8℃	0.5~1.0m
전주	최고/최저: -4/6℃	0.5~1.0m
남원	최고/최저: -7/6℃	0.5~1.0m
속산도	최고/최저: 2/8℃	0.5~1.0m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관심	낮음	낮음
서해 북부 앞바다	서~북서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남해 북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일몰	일출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목포 01:43	07:12
서해 북부 앞바다	남서~서 0.5~1.5m	목포 14:32	19:53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5m	여수 09:25	02:50
남해 북부 앞바다	동~남동 1.0~1.5m	여수 21:31	15:27

◇주간 날씨

날짜	31(일)	2/1(월)	2(화)	3(수)	4(목)	5(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2/9	-1/6	-3/4	-4/3	-5/2	-3/4

기상안전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29일 도심철도 폐선부지 푸른길 공원화 사업이 마무리된 광주역~조선대 구간 2.88km를 시민들이 걷고 있다. 이날 준공식이 열린 광주역~조선대 구간은 모두 9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최현희기자 Choi@kwangju.co.kr

전남도지사 임 후보 예정자 수사 요청

도선관위 측근 4명은 검찰 고발

전남도 선관위는 29일 전남도지사 임 후보 예정자 A씨 측근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4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B씨 등은 초청장에 임 후보 예정자의 사진·화력·경력·수상실적 및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하고, 이를 선거구민 1만1천184명에게 무작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순천시 S도 동장은 지난 7일 관내 여론동향을 이메일을 통해 보고하면서 시장 후보들에 대한 여론 동향도 함께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선관위가 조사를 받고 있다. S동장은 '시장출마 예정자 여론조사 결과 반응'이란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주민들이 행정의 연속성을 위

해 반드시 (현 시장)이 재선해야 한다. 주민들이 현 시장의 시정철학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 선관위는 6·2 지방선거와 관련, 현재까지 모두 156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음식물 제공과 간행물 불법 배포 등 14건을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11건을 수사의뢰했다. 광주시선관위도 6·2 지방선거 관련해 총 16건의 선거법위반 사례를 적발해 1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나머지는 경고조치했다. 또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A후보 측의 출간기념회 등에 대해 지역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희기자 cki@kwangju.co.kr

성추행 교사 경고 처분 교육장 징계 교육감 만들기 앞장 직원 해임 촉구

교육부 검찰 34건 105명 적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교육공무원에 대한 검찰 활동을 벌여 34건, 105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위법 정도가 심한 44명을 징계하고 61명은 경고 등 조치했으며, 1천425만원을 회수하거나 변상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검찰에서 서울시교

육청의 한 5급 직원이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의 선거 기획에 직접 참여하는 동시에 개인 용무를 위해 3년간 78차례나 자리를 비운 것을 적발해 교육청에 징계(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또 무면허 업체와 학교 공사를 수의계약하고 공사비를 부풀려 736만원을 부당 지급한 서류 한 초등학교 교장도 징계하기로 했다. 특히 제자를 성추행한 교사를 단순

치매 남편과 함께 살던 70대 할머니 투신 자살

28일 밤 8시40분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 J아파트 9층에 사는 이모(여·74)씨가 아파트 화단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아들(58·광주 용봉동)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2년간 징병 신체검사서에서 1~3급 현역 입대 판정을 받았음에도 10kg 상당의 아령을 들어 올렸다가 빠르게 내리기를 반복하는 등의 수법으로 어깨 탈구를 일으켜 재검에서 5급 면제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축구 특기생으로 대학에 진학한 뒤 합숙생활을 하면서 선 후배들로부터 이런 방법을 전해 들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허위로 학원에 등록하거나 시험에 응시하는 수법으로 70~830일 입대를 연기한 축구 선수 고모(29)씨 등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40대 집서 목매 숨져

지난 28일 밤 11시께 여수시 군자동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방수배된 김모(49)씨가 자신의 집 창고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아들(24)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아들은 경찰에서 "이들 전 집에 들어온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져 창고에 가보니, 목을 매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숨지기 직전 "자식들에게 미안하다. 딸에게 잘해주려고 했다"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 한 장을 남겼다. 경찰은 숨진 김씨가 딸에 대한 죄책감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마감 3일 남은 사랑의 온도탑 목표 달성 비상

29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 신세계백화점 정문 앞 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행복 온도탑'이 95도를 기록하고 있다.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건국)에 따르면 2010년 사랑의 온도계는 모금 마감 사흘을 앞두고 이날 현재까지 목표액 20억5천만 원 중 19억5천만 원을 모았다. /최현희기자 Choi@

친딸 성폭행 혐의 수배

40대 집서 목매 숨져

지난 28일 밤 11시께 여수시 군자동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방수배된 김모(49)씨가 자신의 집 창고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아들(24)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아들은 경찰에서 "이들 전 집에 들어온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져 창고에 가보니, 목을 매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숨지기 직전 "자식들에게 미안하다. 딸에게 잘해주려고 했다"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 한 장을 남겼다. 경찰은 숨진 김씨가 딸에 대한 죄책감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흙친 옷 입고 가게 앞 지나다 덜미

○한 달여 전 흙친 민코코트를 입고 옷가게를 지나던 20대 여성이 가게 내에 설치된 CCTV에 범행장면이 찍히는 바람에 경찰에 덜미. ○29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신모(여·28·북구 일곡동)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20분께 광주시 북구 일곡동 백모(여·44)씨의 옷가게를 들러 100만원 상당의 민코코트 한 벌을 몰래 가져가는 등 최근까지 두 차례에 걸쳐 11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달아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신씨는 흙친 옷을 입고 백씨의 옷가게를 지나던 중 CCTV를 보고 자신의 얼굴을 알아본 백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에서 "민코코트를 보는 순간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